제9회 전국 현상모집 입상 작문 84년도

—발명사상앙양 보급을 위한—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에서는 제9회 전국 초…○
○…중학생작문·만화 현상모집 수상작품중 최우수…○
○…상·우수상·가작상 수상작품을 연재하기로 하였…○
○…읍니다. ……○
○… 어린이들이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
○…운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생각을 더 해…○
○…가고 문제를 발견해낸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 하…○
○…나 읽어 갈때 우리의 앞날은 퍽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 국민학생부 ■

가작상<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상>

신기한 나팔꽃 씨

김 은 경
인천 서흥국민학교 제 5학년

우리집에는 작년에 심은 나팔꽃이 예쁘게 피었다.

지금은 꽃이 지고 씨가 열리고 있다.

작년에 장난 삼아 나팔꽃 씨를 따서 체육복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나는 그날밤 목욕을 하고 체육복을 그대로 놔두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다 나팔꽃씨를 보고 찬물에 담가 놓았다.

버리기가 아까우셨나 보다.

그날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었다.

세수를 하러 목욕탕에 갔더니……

글쎄 얼마전 담가놓은 나팔꽃 씨가 곱게 피어나고 있을 줄이야……

이상도하다!

땅속에 심었던 것은 나오지 않아 4일~5일 후 쯤에 날까한데, 어째서 요것은 그렇게 빨리 났을까?

정말 궁금했다.

다음 날에 싹이 자라고 다음날에는 뿌리가 생겼다.

나팔꽃씨가 자라는 과정을 보고 나는 관찰 일기를 썼다. 지금은 벌써 3권째 이다.

나팔꽃이 무럭무럭 자랐다.

나는 나팔꽃을 이름을 지어 주었다.

물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돋고 이름을 물싹뿌리라고 지었다.

나는 매일 물싹뿌리에게 물을 주었다.

나는 물싹뿌리가 조금 컸을 때 나무대를 받쳐주었다.

지금은 울창한 어른 나팔꽃이다.

그 때는 물싹뿌리는 나의 친구였다. 나팔꽃이 어째서 그렇게 되나 하고 식물백과 사전에서 찾아 보았다.

나팔꽃은 나오나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식물은 물와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것 이라고 한다.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신비하다.

그러나 알 도리가 없다.

나는 물싹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내가 싹을 띄운게 그렇게 좋은 이익을 주는지 나는 그런줄은 몰랐다.

내가 장난삼아 한일은 정말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내 친구 하나를 생겨서 좋기만 합니다.

생물의 신비는 이상하기만 하다.

내가 커서 식물학자가 되도 자연의 신비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다. (㈜)

중학생부

가작상<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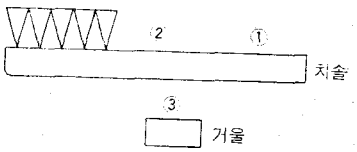
나의 발명

장 상 회
영광 대마중학교 제 3학년

여름방학때 일이다. 날씨는 찌는듯한 삼복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에 계시는 삼촌이 여름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우리집에 들렸다. 삼촌은 아버님과 이야기를 다나누시고 집에갈때 삼촌이 내게 하시는 말이 "이는 오복중에 하나이니까 이를 소중히 여겨 이를 매우 깨끗이 잘 닦아야 한다"라고 하며 나에게 치솔과 치약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 이를 더 열심히 닦았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다 닦고 이가 잘 닦였는지 닦여지지 않았는지 거울이 있는데로 가서 보아야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치솔에 거울을 붙이면 복잡한 일은 없을것 같았다. 그래서 이일을 해보아야 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만들기 전에는 쉽게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일에 이리저리 생각하다보니 벌써 여름방학도 지나 2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공부에 열중하다보니 그만 치솔에 관한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을때 누나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며 책을 한권 사주셨다. 그 책은 나폴레옹의 책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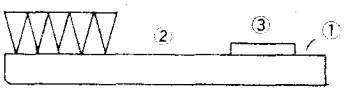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책을 다읽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그만둔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여름방학때 치솔에 거울 붙이는걸 남에게 상의도 해보지 않고 나혼자만 생각하다가 그만 두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걸 해볼 생각으로 시작했다.

나는 치솔의 손잡이 부분에 거울을 붙이기로 생각하고 치솔의 손잡이 만한 거울을 찾아보았다. 거울이 너무 큰걸 손잡이에 붙이면 거울이 손잡이 밖으로 나오면 쓰기가 불편할 것 같아 이만 보일수 있도록 거울을 손잡이만한 것을 붙이기로 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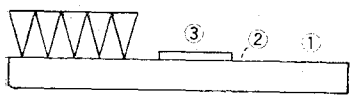
거울을 치솔에 붙이려면 우선 그림 1에 있는 ③번을 ①번 위에 붙였다. ③번을 ①번에 붙일때는 본드를 사용했다. ③번을 ①번에 붙이고 보니 그림 2에 있는 것 같이 되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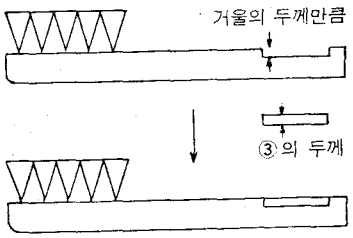
그림 2와 같이 거울을 붙여서 쓰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거울을 손잡이 부분에 붙였기 때문에 치솔을 잡으면 거울이 불룩 튀어나와 촉감이 이상했다. 그리고 거울이 손잡이 부분에 있어 자주만지니까 가끔가다 거울이 떨어졌다. 몇일 쓰고 거울을 붙이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둘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란 이말. 그래서 나는 다시 할려고 마음먹고 이번에는 나혼자만 생각할게 아니라 형한테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았다. 아무래도 형은 나보다 배운게 많을것 같았다. 하지만 형은 광주에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2주일에 한번씩 집에온다. 형이 집에올려면 2주일이나 남아있었다. 나는 웬지 형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다. 2주일이 지나 형이 집에왔다. 나는 형이 집에 오자마자 형한테 물어 보았다. 형은 한참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림 1에 있는 ③번을 ①번에 붙이지 말고 ②번에 붙여보라고 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림 3과 같이 되었다.



(그림 3)

그림 3같이 해놓고 보니 치솔의 중심이 맞지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보기에도 이상했다. 역시 거울은 치솔의 손잡이 부분에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 그냥 그렇게 썼다. 보기에는 안좋지만 잘떨어지지 않고 이도 잘 보였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없이 썼다. 나는 더 좋게 만들려고 하지않고 그만두어 버렸다. 세월은 흘러 독서의 계절 가을은 가랑잎 하나만을 남긴채 그 자취를 없애고 하얀 눈이 눈앞을 가리며 우리마을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우리도 겨울방학을 했다. 나는 방학도 되고 해서 외가집에 갔다. 외가집에는 외할머니와 삼촌들이 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삼촌은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신다고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내가 가자마자 삼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덜어주는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니? 아니면 생각을 해놓았다던가? "하고 물으시는게 아닌가. 나는 생각하다가 거울을 치솔에 붙인 것을 말씀드렸다. 볼품은 없었지만 삼촌은 내말을 듣고 "아주 좋은걸 생각했구나"하셨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해보라고 했다. 그림 1의 ③번 두께만큼 ①번에 홈을 파고 ③번의 밑변에 본드를 충분히 바른다음 ①번의 홈자리에 넣으라고 했다. 그렇게 하자 그림 4같이 완성되었다.



(그림 4)

그림 4같이 완성을 해서 써보니 정말 좋았다. 나는 치솔에 거울다는 것을 다만들고 느낀게 한가지 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앞으로 나는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 보아야 겠다. (㉿)

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발 명 기 술 기 술 혁 신 이 룩 되 는 선 진 국 가
과 학 기 술 발 전 시 켜 복 지 국 가 이 룩 하 자
가 정 에 서 뿌 린 정 직 사 회 에 서 꽃 핀 신 뢰